

“집단 확진 건물 이용했는데 불안해요”

광주 화정동 중형병원, 추가 감염 여부 예의주시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치료 어디서 만나” 분통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중형병원의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가끔 식당과 카페를 이용했는데 불안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온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중형병원은 13일 오전부터 출입이 통제됐다.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과 인근의 식당, 카페 등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추가 감염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중형병원에서는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와 그 가족 등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수 검사에서 환자까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는 환자 7명, 간호조무사 등 4명, 가족 1명 등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이 병원에는 의사 2명과 한의사 1명, 간호사 등 20명, 5층(21명)과 6층

(6명)에 총 27명의 입원환자가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자 확진자는 5층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날 병원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따라 약국은 이른 오전부터 매일 하던 방역·소독을 더욱 철저히 했다.

약국은 이른 오전부터 분무기를 이용해 방문객의 손길을 닦는 출입구 문고리 등 모든 곳에 방역약품을 뿌린 뒤 닦아냈다.

인근 한 식당은 “당분간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며 “휴업 안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입구에 부착했다.

확진자 발생 소식을 인지하지 못한 외래환자는 병원까지 올랐던 뒤 이내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중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시 내려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외래환자는 “병원 입구에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료 및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상진료 안내 문구’가 붙어 있어 운영을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러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식당 주인은 “입원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식당을 자주 방문했는데 불안하다”며 “추가 확진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완도해경, 경비함정 및 해경 구조대 현장 점검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완도해경전용부두에서 경비함정과 해경 구조대를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취임 이후 해양경찰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중·소형 함정, 해경 구조대 대상, 경찰관과 의무경찰들의 근무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후 이뤄졌으며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 같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현장에 강하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승체험

광주 동부소방서는 13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주요 정체도로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 및 동승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방차량 5대, 인원 20명이 참여해 길 터주기 훈련 및 동승체험을 진행했다. 훈련참가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승 정체 구간 대한 긴급 출동 훈련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및 우선통행 요령 홍보 ▲전통시장 등 좁은 길 한쪽 주차하기 홍보 등이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인(기자 1명)과 일반시민(2명)에 소방차량 동승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고드름 낙하주의보’ 119로 신고하세요

광주 남부소방서는 연일 계속되는 ‘복극발 한파’에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대형 고드름 탓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도시 속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드름 제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남구 입암동 소재 김치타운 건물 6층 높이에는 배수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외벽을 따라 지름 40cm, 길이 15m의 대형 고드름이 발생했다. 순화119안전센터 대원들과 굴절사다리차가 출동하여 고드름을 안전하게 제거 조치했다.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건물 윗부분이나 벽면 등 제거하기 어려운 곳에 고드름이 생성된 경우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광양소방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광양소방서는 최근 오전 11시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갖는다.

화재발생시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장밀집지역 등 산업단지의 화재위험요인 개선과 주요 취약대상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현경 서장을 포함한 소방서 관계자 4명과 포스코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광양제철소 내 위험물질 정보공유, 기존 발생한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였다.

광주전남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21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의 편의와 자율적 병역이행을 위하여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무계...설 특별방역도 논의

중수본 “거리두기·소모임 조치, 바로 풀기 어려울듯”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방향으로 무계가 실리고 있다. 대신 6주에 걸친 장기간 거리 두기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정비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수도권은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을 거쳐 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 중이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기준인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경우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하루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하루 1000명대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소시키는 했지만 이날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544.14명이다. 수도권외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려면 300명대에는 진입(▲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해야 하지만 단기간 환자 급감은 어려울 거란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하면 아직 500명대 수준으로 이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할 거란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500명대 수준도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하향 조정과 함께 풀기 어렵다고 밝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성 등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방역당국은 그간 3차 유행 확산 차단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를 전방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라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들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선 17일 자정까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 실내외 같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집합·모임 활동은 금지 대상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정부는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15일 중대본 토의를 거쳐 16일 최종 발표한다.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요일 포함 2월11~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특별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junsol@junsol.com

준솔루션